

## 코스피, 5%대 급등에 올 들어 7번째 '매수 사이드카' 발동(종합)

등록 2026.05.06 09:30:26 | 수정 2026.05.06 11:18:01



[서울=뉴스시스] 정병혁 기자 =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7000 돌파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. 2026.05.06. jhope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 김경택 기자 =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단숨에 7300선까지 돌파하는 등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.

한국거래소는 6일 오전 9시6분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(사이드카)가 발동했다고 공시했다.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.

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5%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. 사이드카 발동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은 5분간 정지된다.

이날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 지수는 1116.55로 전장(1050.50) 대비 6.28% 상승했다.

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총 14회가 발동했다.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며 매도 사이드카도 올해 7회 발동됐다.

이 시각 현재 코스피200선물 가격은 68.55포인트(6.53%) 뚝 1119.05를 기록 중이다. 같은 시간 코스피200 역시 6% 넘게 오르고 있다.

한편, 코스피는 375.05포인트(5.41%) 폭등한 7312.04를 기록 중이다. 코스피가 70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이에 따라 지수는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약 두 달 만에 재차 7000선에 도달하게 됐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mrkt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